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요단강 도하와 돌비

본문: 여호수아 4장 1~14절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담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과 모험이 많이 나오는 책으로써, 전반부는 여리고, 아이, 기브온, 하솔 및 여러 도시에 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정복이 완료된 후, 점차 안정되어 가며, 조상들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요단강 도하(1-3절).

지도자 모세를 잃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2절)라며 명령하십니다. 아울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성도)가 죄악 된 세상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먼저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생활’을 위해서 ‘영적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2. 기념 돌비를 세움(4-9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여호수아 3:12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호와와 함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강바닥에서 돌을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고 지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울 돌 12개를 취하게 한 후, 다른 열두 돌을 요단강 바닥에 세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자카론; 히브리어)’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요단 도하가 끝남(10-14절).

여호와와 언약케를 맺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언약케를 맺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약속된 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와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지도자를 따르고,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지도자를 따르며,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으며,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2.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기념비를 세웁니까?

“ 내 인생의 날개 ”

하루는 새들이 말하기를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면서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양어깨에 무거운 짐을 매달아 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라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며 새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양 날개를 활짝 펴보아라” 독수리가 맨 먼저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겼던 육중한 날개를 활짝 펴 힘껏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창공을 날 수 있었지요. 새들의 어깨에 붙은 것은 ‘짐’이 아니라, 창공을 가르는 ‘날개’였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날개’인 경우가 많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친구 나를 향한 주위의 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들까지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높이 날아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 인생의 날개가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명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명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 37:7).

THINK

요즘 내가 감당하기에 힘겨운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무거운 짐일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3월 2일	3월 9일	3월 16일	3월 23일	3월 30일
마을특송	손숙희 권사	이순희 권사	한선미 권사	전진희 권사	안병자 권사
대표기도	행복한	샘솟는	섬김	살롬	온유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3월 5일	3월 12일	3월 19일	3월 26일	4월 2일
본당청소	행복한	샘솟는	섬김	살롬, 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주요광고

- 좋은이웃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혜롭고 성숙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마을장,목자,교사,임원은 필참입니다.
- 정기당회 / 일시: 3월 20일(주일) 2부 예배 후 / 장소: 4층 VIP실
- {세이레 새벽기도회}가 3월 28일(월)~4월 17일(부활주일)까지 진행됩니다.
 1주(3.28~4.3) / 주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강화 / 설교: 유천형 목사
 2주(4.4~4.10) / 주제: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 설교: 서민기 목사
 3주(4.11~4.17) / 주제: 가상칠언(架上七言) / 설교: 김윤석 담임목사
- 주일 출석 보고/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 후 목장 출결 상황을 [마을장]을 통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세례교육 안내/ 학습: 온라인 진행 중 / 세례: 주일 3시 30분, 4층 VIP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